



MISSION LETTER 09/2022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사 43:18-21)

할렐루야! Bwana Yesu Asifiwe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새 물결)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아프리카선교회(EAMF)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기에 함께 나눕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시간 허비하고, 자가도취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이 새로운 선교방향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목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동시에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의 계절이 되길 기도하며 선교소식 나눕니다.

우리 동아프리카선교회의 New Wave (새 물결) 선교 운동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EAMF 의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지난 7월 26일 ‘EAMF 감사의 밤’ 행사를 통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박선교사 가정이 사역지를 이양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 우리 동아프리카선교회의 탄자니아 선교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선교지의 문을 열고 현지인들과 함께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도전하는 운동입니다.

그 새로운 도전은 탕가신학교(Tanga Christian Bible College)를 졸업한 동문들을 탄자니아 선교의 중심에 서도록 격려하여 그들을 탄자니아 이웃 나라에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문들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되어, 그 이웃나라 백성들을 제자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New Wave' 입니다. 탕가신학교는 1999년 개교 후 지금까지 약 4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8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탕가신학교 동문들 중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그 운동에 탕가신학교와 리빙스톤학교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은 그동안 선교사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운동은 이미 '미국 선교회'와 '한국 선교회'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8월 탕가신학교 총동창회를 통하여 정식 파송식을 갖기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New Wave 운동의 목적은 동부 아프리카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I. 리빙스톤학교 (Living Stone Boys Seminary) 동문 Clever T. Yohana 한국방문 소식

2016년 LSBS 중학교 제2회, 2019년 LSBS 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인 Clever Yohana는 현재 탄자니아 국립의대, Muhimbili University of Health and Science (MUHAS)에서 의대 학부과정에 속하는 3년 과정을 마치고 4년차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졸업시험에서 전국 남학생 가운데 제7위를 기록하여 학교 이름을 빛내주었습니다.

여수 애양병원 (이의상 원장님)의 초청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두 달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양병원은 지난 2021년 박윤석 선교사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병원 선교비로 전액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Clever는 지난 8월 28일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애양병원에서 병원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의 배려로 스텝들과 함께 KBS 관현악단의 콘서트에 갔고 추석연휴에는 혼자 오동도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는 한국 교회에 참석하여 인사도 나누고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수술에 참관하는 등 병원내에 거주하며 한국 음식과 병원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Clever가 무척 밝고 명민하며 잘 배우고 peace maker 역할을 한다고 이의상 원장님께서 칭찬의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음식을 잘 먹어서 맘에 든다고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애양병원의 배려로 전주 “예수병원”에 2주간 실습을 나가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경외과에 소속되어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신경외과에는 뇌동맥류 치료에서 명의로 인정받으시는 허승곤 교수님의 지도아래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선덕원’ 설립자) 교육 아래 선교의사가 되고자 하셨던 분이기애 Clever에게는 분명 특별한 만남일 것입니다. Clever 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국에서 그를 돌보는 분들을 통하여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Clever 는 9월 24일 애양병원으로 돌아가 2주간 실습을 더 하고 저희와 만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애양병원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Clever 와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서울에서도 애양병원과 예수병원처럼 세브란스병원의 역사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 문화 유적지, 한국의 IT 산업을 볼 수 있는 곳과 한국의 현재를 대표하는 곳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대의 후원으로 약 3일간 대전을 방문하고 포럼에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선교회와는 9월 16일 선교미팅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III. 박선교사 가정 해외사역 일정

1. 10월 한국방문 (10월 4일부터 27일)

방문 목적은

- 한국 EAMF 선교회 ‘감사의 밤’ 모임 참석, 10월 16일
- Clever (리빙스톤 동문 의대생) 한국 병원실습 및 방문 일정을 돕기 위하여
- 충남 대전에서 크리스천 과학자들 주 축으로 열리는 포럼(Christian Forum in Science and Engineering, CFSE) 참석 -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소개
- 충남대와 리빙스톤학교 Science camp 2023 논의
- 박선교사 부부 건강 검진

2. 11월 탄자니아 방문 (11월 9일부터 26일)

방문 목적은

- 11월 18일 탕가신학교 졸업식 참석

- 11월 25일 리빙스톤 중학교 졸업식 참석
 - New Wave 운동에 관한 논의 및 점검
 - 2023년 8월 탕가 신학교 총 동창회 행사 논의
 - 2023년 Science camp 논의
 - 3곳의 교회와 선교센터 헌당식 참석 (한국 단기 선교팀 동행)
3. 2023년 1월 에콰도르(Ecuador) 사역 예정 (1월 3일부터 14일)
- 10계명 특강

IV. 기도제목

1.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역이 되도록.
2. 미국과 한국의 EAMF 리더십 변화와 새로운 회원 동참을 위하여
3. 탕가신학교와 리빙스톤 학교의 계속된 성장을 위하여
4. 박선교사 부부의 많은 해외 여행중에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길.

김은래 선교사의 해외거주인정신청서 (N-470)가 승인을 받아 영주권자로서 해외 체류 시 그 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 방문이 많아 공항에서 재입국을 문제삼을 수 있어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는데 미국정부(USCIS)에서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기간을 (10월 15일부터) 미국내 거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약 19일이 걸려 선교 편지로 기도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선교회 모든 식구들께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28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올림.